

“굴 산지 고흥 해창만서 신선한 맛 즐기세요”

군, 내년 1월 3일 ‘제1회 해창만 굴 축제’ 개최

‘굴 한 상 차림’ 등 미식·체험 프로그램 등 구성

고흥군이 제철 음식인 굴을 가장 신선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포두면 해창만 오도캠핑장 일대에서 ‘2026 제1회 해창만 고흥 굴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제철인 1월에 고흥 굴을 산

지에서 가장 신선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겨울 미식 축제이다.

축제의 주제인 ‘바다의 시간, 고흥의 맛’은 양은 수심과 펠(펠)·모래가 섞인 해창만 해역에서 자라 단단하고 달콤한 풍미를 지닌 고흥 굴의 고유성을 담고 있다.

해창만은 영양 순환이 활발해 굴의 밀도와 감칠맛이 겨울철 절정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특징을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미식·체험·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의 핵심 공간인 미식존 ‘바다마루’에서는 고흥 향토음식인 피콜을 비롯해 굴보쌈·굴국밥·굴전·굴튀김·굴라면 등 10종의 ‘굴 한 상 차림’을 선보인다.

스페셜존 ‘굴미포차’에서는 굴구이·굴찜 등 가열 조리 메뉴를 현장에서 즉석 제

공해 제철 굴의 풍미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체험존 ‘바다놀이터’에서 굴스토리 체험, 소원 굴걸이, 어린이 쿠킹클래스, 해물 바람개비 만들기 등을 운영하며, 고흥굴 마스코트 ‘꾸울이’ 포토존과 스템프 미션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 방문객의 체험 요소를 확대했다.

마켓존에서는 석화·해산물·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명절 대비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주무대에서는 세프 시연, 굴 요리 경연, 굴 까기 대회 등 고흥 굴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미식 프로그램과 바다 노을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창만에서 자란 고흥 굴은 바다의 시간과 어민의 정성이 빚어낸 특별한 맛이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고흥 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고흥을 대표하는 겨울 미식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보성군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성, 취약계층 대상 복지정책 빛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상…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 선정

보성군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보성군과 부산 연제구 단 2곳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성군의 AI 기반 선제적 복지행정 추진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표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AI 초기 상담 기능을 활용해 위기기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아яз지한 지자체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보성군은 AI 기반 복지 행정의 실현성을 현장에서 입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단전·단수·단기스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초기상담

2단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위기 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해 왔다.

‘AI 초기상담’은 위기 징후가 감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기구 3000여명을 발굴해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AI 초기 상담을 꾸준히 운영해 위기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령 기자 lirn@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화엄사 화엄원에서 중·고등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마음충전프로젝트 ‘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을 개최했다.

미래 주역 청소년들 마음 충전·힐링 ‘호응’

구례군, ‘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 개최

구례군은 최근 화엄사 화엄원에서 중·고등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마음충전프로젝트 ‘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또래상담동아리(솔리언)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 기록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 모델로 운영됐다.

행사는 구례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화엄사, 구례교육지원청 등 12

개 기관이 협력해 장소 제공, 인원 모집, 차량·식사 지원 등 운영을 함께 담당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치유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프로그램은 마음 이해 명상, 마음챙김 요가, 싱잉볼 명상, 확인 시각화 명상 등 K-명상 프로그램과 오후 만다라 미술치료 및 ‘나에게 쓰는 감사 편지’ 작성 등으로 구성돼 심리 안정과 자기 성장을 돋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엄사 꽃스님으로 유명한 범정스님과의 Q&A를 통해 우울·스트레스 관련 고민을 직접 나누고 조언을 받았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

여수시·관광협의회, 중국 관광객 유치 공동 대응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 대응 여수관광·섬박람회 홍보

여수시는 (시) 여수시관광협의회와 함께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민·관 합동 관광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여수의 주요 관광 자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여수 관광의 경쟁력을 중국 현지 여행업체에 직접 소개하고 실질적인 관광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문 기간 중 여수시관광협의회는 중국 항저우여행사협회와 상호 관광 교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여수·항저우 간 단체관광 상품 개발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항저우는 1994년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중국 저장성의 중심이자 역사와 문화, 관광 인프리를 두루 갖춘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도시다.

여수 관광 설명회에는 항저우 현지 대표 여행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설명회 이후 여수시·여수시관광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광 교류 확대와 협력 방

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여수의 해양과 섬을 중심

으로 한 자연관광 자원과 MICE 산업 인

프라, 야간관광 콘텐츠 등 여수시의 주요

관광 정책을 소개했으며,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2026



여수시는 여수시관광협의회와 함께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민·관 합동 관광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여수의 주요 관광자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접종 홍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문이 여수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체에 직접 알리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홍보와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제철소, 광양서 조선시대 서화 특별전

일본서 국내 돌아온 38점

내년 2월 28일까지 전시

포스코광양제철소는 포스코미술관 광양에서 2025년 특별전 ‘The Hidden Chapter—오백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를 개최한다.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지방도시인 광양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예술작품 관람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는 일본의 저명한 한국 미술소장자인 ‘유현재 컬렉션’의 조선 시대 서화로 우리나라로 돌아온 작품 중 38점으로 구성됐으며,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산수화, 인물풍

속화, 화조화·화영화, 기록, 궁중화,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현재는 일본 교토의 고미술품점 이조당을 운영하며 한국 고서회를 수집했던 이리에 다케오의 자택 당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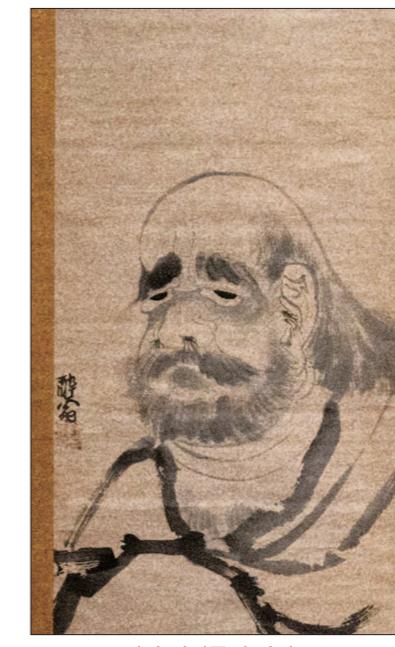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국공립박물관의 작품이 아닌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이어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작품이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 조선 민화 속 ‘호랑이가 최근 ‘캐 이밥 대문 헌터스’의 인기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9세기 작품 정재 홍장중

의 ‘수하호도’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정재 홍장중의 수하호도



연암 김명국의 달마도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의 대표적인 작품인 ‘달마도’는 17세기의 조선통신사 수행회원으로 일본을 두 차례 방문했던 연암 김명국의 작품으로 ‘유현재한국 고서화도록’에서 통신사관련작품으로 기록된 특별한 그림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이 우리 옛 그림과 글씨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문화재 환수는 역사적 진실 목원과 민족 지긍심 제고라는 의미와 가치까지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kookmin.com

순천시가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여행 인플루언서 및 관광 관계자 20명을 초청해 겨울 감성 힐링 프로그램 ‘마음의 치유, 차(茶) 오름’ 팬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투어는 순천 전통차 자원의 관광 콘텐츠화를 위한 사전검증 차원에서 기획됐다.

선암사 애생차밭, 명인차 체험(신광수), 다식(茶食) 쿠킹클래스 등 순천만이 가진 고유의 힐링 자원에 미식 체험을 결합한 겨울 감성형 코스로 구성된 특별정이다.

참가자들은 △선암사 애생차밭 스토리 체험 △신광수 명인과 함께하는 다례(茶禮) 체험 △다율재 녹차 훈증 체험 △만들어 챙쌀떡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치와 겨울 풍경이 어우러진 순천만의 미식·휴식 콘텐츠를 경험했다.

또, 참여 인플루언서들은 각자의 SNS 채널을 통해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와 체험 후기를 공유하며 순천 전통차 관광의 매력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한 인플루언서는 “순천은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은전히 쉼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다”며 “전통차를 미식과 연결한 새로운 형태의 힐링 투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이번 팬투어에서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보완 및 차 관광상품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K-미식벨트 전통차 분야 공모 준비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관광객 대상 정식 관광상품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